

해외 인턴쉽 경험 보고서

이 름	한 글	김주리	영 문	Julee Kim
학과(전공)	커뮤니케이션 대학(학부) 신문방송 학과		학 번	20101136
인턴쉽 기간	2013 년 12 월 16 일 ~ 2014 년 6 월 16 일			
근무 회사명	Media3, Ltd		근무 부서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제가 참여했던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는 정부가 주관하는 해외인턴사업 중 하나로써 설계된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개인의 경력 및 진로설계를 도울 뿐 아니라 다양한 인턴쉽의 기회를 제공해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매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여 미국 지역으로 파견하며 현재 14 기 모집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다른 여타 정부주관 해외인턴사업과의 다른 점은 이를 통해 인턴쉽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들을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어학연수 기간을 거친 후 인턴쉽에 투입되며 어학연수 4~5 개월, 인턴쉽 3~12 개월 그리고 여행 1 개월을 합쳐 최장 18 개월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저는 12 기 WEST 로 선발되어 약 1 년 가량 뉴욕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 회사에 대한 소개 (회사의 사업영역 및 근무경험을 통해 알게된 사항 등)

저는 지난 6 개월 동안 Media3 Ltd 라는 텔레비전 방송 전문 스튜디오에서 근무했습니다. Media3 Ltd 는 뉴욕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와 캐나다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맨하탄 지부는 Media3 Ltd 의 본사로서 회사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지만, 두 개의 대형 프로덕션 스튜디오, 세 개의 컨트롤흐름 및 다양한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 라이브 샷, 위성 미디어 투어, 웹 캐스트 및 기타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주로 다루는 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방송사(NBC, FOX...)또는

대형 프로덕션과의 미디어 투어를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각 방송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분위기에 맞추어 세트를 디자인, 설계하고 실제로 구성하며 방송 촬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 사진 : 실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튜디오의 모습 >

● 근무 부서에 대한 소개 (회사내에서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영역 등)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부서는 나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다루는 업무(영상 촬영, 장비 점검, 홍보, 고객 응대 등)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수행업무에 대한 소개

저는 주로 저의 담당 supervisor 인 Nicole 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맡게 된 일은 회사를 방문하는 클라이언트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응대하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래어와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어 명칭이 달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장비의 사용법과 전문 용어들을 익히고 회사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맡은 일은 방송의 컨셉에 맞게 세트를 준비하고, 장비를 점검하는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Media3 Ltd 는 하나의 드라마나 예능을 장기간 준비하고 방영하는 방송국이 아니라 각각의 방송 또는 프로모션에서 필요한 영상을 그때그때 컨셉에 맞게 준비해주는 세트장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세트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광고와 같은 영상에서는 세련된 느낌의 배경과 차가운 조명을, 영화 홍보 영상에는 커다란 영화 포스터와 함께 영화 이미지에 어울리는 조명을 준비하는 식입니다. 생각보다 힘을 쓰는 일이 많고, 장비의 종류가 복잡해서 처음에는 일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익혀 나중에는 간단한 방송을 위한 세트 정도는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메라, 조명, 소품 등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적 부분들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차츰 세트장의 구조와 장비들을 익혀가며 저에게 생방송 중 업무도 맡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중 게스트에게 마이크와 이어폰을 장착하고 큐카드를 바꾸는 간단한 일부터 디지털 파일을 녹화하는 중요한 일까지 단계별로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방송을 아날로그 테이프에 녹화하는 옛날 방식에서부터 컴퓨터 디지털 파일로 녹화하는 현대적 방식으로 모든 녹화 방식을 변화시켰는데, 이 파일 녹화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생했던 촬영분을 잃어버리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을 진행하려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 근무소감 및 향후 계획

Media3 Ltd 라는 회사에서 일했던 모든 순간이 값진 경험이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가장 놀라게 만들었던 건 그들이 일하는 태도와 기업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저는 뉴욕으로 떠나기 바로 전 한국의 한 공기업에서 약 6 개월 간 인턴 경험을 가진 후라 한국 기업의 다소 경직된 기업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분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친근하고 격의 없는 동료간의 대화 그 자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질문할 때에 칭찬 받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할 때에 격려를 들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는 언제나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던 Taro 와 Damon 은 평상시에는 전혀 상사라 느낄 수 없을 만큼 편안하게 다가오며 저의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이론으로만 익혔던 방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장비를 만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던 경험 또한 매 순간 저를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전공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것 또한 큰 장점이었습니다. 기존의 회사 웹사이트는 제작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바꾸어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냈고, 저의 Supervisor 였던 Nicole 은 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다른 방송 스튜디오의 사이트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회사의 사이트에 꼭 필요한 리스트를 추려내는 프로젝트를 맡겨주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전공 분야가 아님에도 웹사이트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는 제 의견이 회사 친구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 향후 취업지원분야 및 준비 계획

보고서에서는 인턴쉽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WEST 는 본래 어학연수와 여행 또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저 또한 인턴쉽을 시작하기 전 뉴욕에 위치한 Kaplan 어학원에서 4 개월 가량 어학연수를 했고, 인턴쉽이 끝난 후 미국 서부와 플로리다 그리고 캐나다 지역을 약 2 개월 동안 여행했습니다. 어학연수, 인턴쉽, 여행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지난 일년 동안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많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부터 미국 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것, 집을 계약하는 것, 혼자서 한달 생활비를 온전하게 계획하고 돈을 쓰는 것 등 지금껏 살아오며 한번도 혼자서 해보지 못한 경험들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즐거웠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강해졌고, 뉴욕의 높은 생활비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공부했던 영어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영어를 알아듣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조차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막연히 꿈꿔왔던 뉴욕 생활과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무기력해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문제에 부딪쳐 흔들리고 약해지는 스스로의 모습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단언할 수 있는 한가지는, 저는 지금 1년 전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뉴욕에서 했던 인턴쉽을 통해서 진로를 방송 분야로 좁힌 상태입니다. 영어를 쓰는 일에도 더욱 흥미가 생겨 외국계 기업으로의 취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둔 '취준생'의 신분으로 조급한 마음이 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이라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을 여러 갈래의 길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1년이 그랬듯이, 불안함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바라는 일에 솔직해지며,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생각입니다.